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147

JCCT 2022-1-17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사회복지 기반 학제 간 융합전공(장애인평생교육) 신설 논의

A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Major(Lifelong Education for Disabled) based on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and Social Welfare at Daegu University

김영준*, 김화수**, 이근용***

Young-Jun Kim*, Wha-Soo Kim**, Kun-Yong Rhee***

요약 본 연구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장애인 교육 및 복지의 거점 대학으로 위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대구대학교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융합전공이 신설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의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관점 및 성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융합 연구에 따른 접근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위 차원에서 대구대학교는 현행에 구축하고 있는 학문 및 실천 기반의 각종 인프라를 통해 국내 장애인평생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범규 제정에서부터 현장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이 구축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현실적 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역시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구대학교에서 학제 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근거를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학제 간 융합전공 신설 차원에서 조망된 장애인평생교육은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세 분야 간에 우선순위적 관점으로 적용되기도하는 세 분야가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통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강조되었다. 연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국내의 경우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학제 간 융합연구가 수월한 대구대학교의 적용 모델 및 방안을 기점으로 점차 관련 타 대학으로 보급 및 확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세 분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개발 경로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시사되었다.

주요어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학제 간 융합전공, 장애인평생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various grounds and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vergence major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ased on Daegu University, which establishes its status and identity as a base university for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disable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reflects the specificity of disability in common because it targets disabled learners, but since it constitutes two perspective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and welfare, access to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in disabled-related fields is important. In the above dimension, Daegu University has an appropriate foundation to lea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through various academic and practice-based infrastructures, and has sufficient leadership to improv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measures and related grounds to reflect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major at Daegu Univers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dvice. It was emphasized that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viewed as a new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major, should be activated through professional competencies commonly accessible to the three fields rather than applied from a priority perspective between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and social welfar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uggested that Korea, which failed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should gradually spread and spread to other universities starting with Daegu University's application model and plan.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systematically establishing a qualification development path for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three fields was also suggested.

Key words : Daegu University,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Social Welfar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Maj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정회원, 덕성여자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 연구원 (제1저자) Received: December 22,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정회원,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Accepted: January 8, 2022

***정회원,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 (공동저자) *Corresponding Author: whasoolang@hanmail.net

접수일: 2021년 12월 22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Dep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Daegu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1. 서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인프라나 서비스로서 단편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반이다 [1].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분야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 쟁점으로 삼는 노력을 거듭 기울이고 있으며, 위 노력을 통해 공통적인 목적으로 지향하는 장애인의 독립생활이 영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비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의 측면은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장애인의 독립생활은 학령기 등과 같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므로 학교 졸업 후 성인계속교육 또는 사후지원의 차원에서 평생교육 지원체제와 정합되어야 한다 [3, 4].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 간의 공감대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크게 형성되어 지고 있다 [5].

하지만,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흐름을 살펴보면, 문제 제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평생교육의 개념적 정의 및 학문적 성격을 결정짓는 원론적인 차원을 비롯하여 실천적 맥락과 운영 구조를 어떻게 타당화할 것인가의 일원화(unification) 측면이 충분히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6]. 단적인 예로, 현행의 구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은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의 두 가지 차원에서 조망되고 있으며, 두 분야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기본적인 취지 및 목적, 성격, 맥락이 달리 구성되어 분야 간 혼란이나 개념적 불명확성, 실천적 역량의 유사 중복 경향성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4].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가 기초적인 차원에서 학제 간 협력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의 융합(convergence) 타당성 탐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7].

그렇다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형성되기 이전에 기초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련 분야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위 분야들은 어떤 관점과 구성체제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추진해야 하는가? 이런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해 활발히 탐구 및 논의함으로써 현행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이론 수준에서나 실천 수준에서 갖는

달레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8, 9]. 먼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학습 주체의 범주에 앞서 평생교육의 보편적인 기반과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수성 차원에서 '장애(disability)'란 요인에 의해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와 같은 관련 분야가 고려될 수 있다 [1]. 또한, 위 분야들은 장애의 특수성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탐구해야 할 과제가 요구된다. 그 과제란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세 가지 분야들이 공통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역량(professional competence)을 보편화하는 것이다 [10, 11].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가 장애인평생교육의 개념적 정의 및 운영체제에 대해 반영될 수 있는 성격과 근거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종합화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완전하고 타당하게 구축해야 한다.

현행의 사회적 구도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적 정의 및 실천적 사례는 대학, 관련 협회와 학회, 지역 평생교육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논의, 관리되고 있지만 일원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각자의 이해관계와 민간적 수준에서 조직, 교육과정, 전문인력 자격, 유관기관 간 연계 등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2]. 개정 「평생교육법」에 더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노력 역시 현행의 구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을 리더하고 협력하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합의 문제가 융합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불명확성의 한계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12]. 따라서 관련 분야 간의 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및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에 따라,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 구도가 관련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접근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관련 분야의 구성, 관련 분야 간 공통 전문역량의 구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연구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이 융합학(融合學)이란 측면에서 관련 분야 간의 연계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종합적 수준과 범주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가 안정화 및 내실화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모델의 흐름을 전망하는 데 기초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가 관련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 타당하고 안정화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된 필요성이 현행 장애인평생교육의 구도가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방안과 수요라는 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1-3][5, 6][8][10-13][14-16][17-20])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위 문헌들의 분석 결과, 현행의 장애인평생교육이 학문, 실천 토대의 정립을 위해 구성해야 할 모델이나 적용 방략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측면을 중요하게 논의하는 관점이 상호 호응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요 방략과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실시한 것은 문헌 분석에 따라 연구 목적을 위한 주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며, 특별히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해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연구와 실천이 가능한 샘플(sample) 차원의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가 샘플 차원의 대학기관 사례가 아닌 문헌 분석이나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자문이나 면담에 따라 연구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활용성과 실천적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전문가 회의는 전문가들의 집단 면담에 따른 의견 전사 절차가 아닌 각 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주요 영역과 방략을 합의 구성하는 절차로 실시되었다. 2개월(총 10회, 1회 당 50분 내외)에 걸쳐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회의 결과, 연구 내용을 위한 주요 영역과 방략은 “대구대학교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신설 조직 기반화”와 “대구대학교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연구 추진 관련 전문역량 구조화”와 같이 두 가지의 차원으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반영 결과는 다음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 대구대학교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연구 추진 관련 조직적 기반 및 전문역량 구조화

1. 대구대학교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신설 조직 단위 방략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기반을 통해 장애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이점은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융합 전공을 신설할 수 있는 기대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세 가지의 분야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모두 구축하고 있으며, 분야 간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융합 전공을 신설 및 연구할 수 있다. 세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적 기반이 사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curriculum)’의 구성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여기서 교육과정은 세 분야가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를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접근 및 수행해야 할 전문역량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 구성 중심의 분야간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연구 및 신설 추진은 대구대학교 내에서 관계자 간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 비교적 수월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융합 전공의 대상인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를 좀 더 장기적으로 구축 및 리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구대학교 내에 구축된 세 분야 간에 장애인평생교육 전공을 좀 더 집중적이고 밀접하게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변별화하여 세부 전공 영역으로 구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학과 내에 장애인평생교육 세부전공, 재활과학과 내에 장애인평생교육 세부전공, 사회복지학과 내에 장애인평생교육 세부전공을 구축하는 단위적 절차이다. 또한, 이런 단위적 절차는 학부 과정 중심보다는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활발히 고려될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의 논의 구조에서 주축을 이루어야 할 근거와 기준점은 분야별 학과 단위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공유형(shared type)보다는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 실천 토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영역을 선정하여 역시 해당 분야(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장애인평생교육 전공을 주도할 해당 분야를 변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전공 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 수행역량을 기준점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1].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 전공을 이수한 학습 대상자들이 자격 개발 경로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수준 및 범주(자격 등급 및 내용)도 주요 기준점이 된다 [22]. 위 두 가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내에 구축된 세 분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세부 전공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와 세부 전공으로 고려된다면, 특수교육학과 ‘장애인평생교육전공’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현행의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는 ‘지적장애교육전공’, ‘중복·치체부자유아교육전공’, ‘언어·청각장애아교육전공’ 등과 같이 장애 영역 중심으로 세부 전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평생교육전공’ 역시 같은 흐름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의 세부 전공으로 고려된다면, 재활과학과 ‘장애인평생교육전공’으로 구성될 수 있다. 현행의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는 ‘직업재활전공’, ‘언어치료전공’, ‘물리치료전공’ 등으로 세부 전공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과 같이 두 분야로 세부 전공을 반영하고 있는데, 위의 특수교육학과나 재활과학과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전공’을 세부 전공으로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의 각 세부 전공 안에서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측면을 감안하여, 대구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의 각 분야 간 학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의 신설은 분야 간 차별화에 의한 해당 분야의 세부 전공으로 확립 및 정착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 신설은 대구대학교 대학원 내의 특수교육학과, 재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 중 일부 학과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세부 전공을 반영하는 심화·발전 수준으로 정착화되는 데에 주된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다.

2. 대구대학교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공동 전문역량 개발

[2]의 연구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개발 및 양성을 위한 전문역량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위의 전문역량을 개발하는 측면은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개발하는 방안과 연결된다. 현행의 구도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 실천 토대와 관련하여 그 개념적 정의를 구성하는 측면은 ‘교육(education)’과 ‘복지(welfare)’ 간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에 구성되는 전문역량의 결과와 성격이 달라진다 [21]. 이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하게 시도된다고 할지라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융합 연구를 통해 그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고 타당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성인기 장애인을 학습자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 지원체제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분야와 상호 연계적 관점에서 전문역량을 구성하는 측면이 제고되어야 하며, 재활과학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역시 장애인의 학령기와 성인기를 모두 종합한 전 생애 주기(life-span cycle) 차원에서 연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 실천 토대는 앞서 언급한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두 가지 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 [5]. 여기서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분야와 연결되며, 관련서비스는 재활과학, 사회복지 분야와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성은 다시 말해 재활과학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장애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융합 전공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 주지만, 교육적인 성격과 실천 맥락으로 반영되긴 어렵다는 입장 또한 시사한다. 즉,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성인기 장애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교육과 복지의 관점 모두 반영해야 할 수요와 필요성을 갖는 가운데 교육의 관점을 학령기 특수교육으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성인기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보편화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대구대학교에 구축된 세 분야 간의 학제적 접근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대학교에 학과 단위(대학원)로 구축된 특수교육학과, 재활과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관련 전문역량은 ‘공동(common)’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있어 교육과정의 부분이 특수교육 분야에 해당함을 비롯하여, 관련서비스의 부분이 재활과학 및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문역량을 구분시키는 측면은 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시키는 측면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초래한다. 첫째로, 각 분야의 고유 성격과 특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에 융합 접근을 시도할 경우 상호간의 전문역량이 유사·중복될 소지가 많으며,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융합’의 의미를 타당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둘째로,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기반의 통합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에 대한 수요가 합일화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넷째로,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대구대학교 내에서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 연구 및 신설 자체가 추진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분야 간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의 신설을 위해서는 공동 전문역량이 합리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세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의 공동 전문역량은 크게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학습’, ‘관련서비스’의 차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5]. 위 세 가지의 전문역량은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학문, 실천 토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고려되는 교육과 복지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성인기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데 있어 구축되어야 할 요소에 해당한다. 첫 번째 전문역량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은 성인기 장애인 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 인문소양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과 관련된 평생교육 지식 및 기술을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및 수업의 형태로 보장받기 위해 일차적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의 전문역량으로 구성된 “교수·학습 역량”은 첫 번째 전문역량인 “교육과정 및 수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적 실천의 차원에서 연합되어야 할 수행에 해당하며,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교육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위치를 갖는다. 다음으로, 세 번째의 전문역량은 총체적인 의미와 위치 차원에서 ‘관련서비스’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성인기 장애인 학습자의 삶의 질에 대한 특수성 차원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과 연계 보장되어야 할 재활복지 인프라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세 분야

간 학제적 접근의 융합 연구(convergence research)를 통해 “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교수·학습 역량”, “관련서비스 역량”을 공동으로 접근 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를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수요 및 여건 등과 아울러 구성할 경우 “대구대학교 대학원 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위한 교육과정 내 여러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위 세 가지의 전문역량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 내용에 기반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의 교육과정 내 교과목을 개발함에 있어 분야별 기존 인프라가 반복 활용되어 선 안 된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 분야가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분야의 “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교수·학습 역량”에 중점적으로 반영된다고 하여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맥락 및 성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restructured)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련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재활과학 및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가 위 “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교수·학습 역량”과 관련된 여러 교과목을 이수할 시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수월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으로, 교육 제반 분야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분야 관계자 역시 “관련서비스 역량”의 접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의 특수성 이란 공통성 속에서 세 분야가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분야의 전문역량을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구대학교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 기반이 추진되어야 한다.

3. 대구대학교 분야 간 학제적 융합 전공(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자격 개발 경로

대구대학교 내에서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신설함에 의해 조직 및 교육과정 기반이 마련된다는 측면은 곧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화 제도(qualification system)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1]. 즉, 대구대학교 내에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신설하였다는 것은 학업 이수자들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적인 차원 뿐 아니라 학습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경력 개발 및 자격 취득의 과정이 발전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7]. 이와 같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개발은 앞의 2번에서 논의한 전문역량을 중심으로 등급 기준과 근거 내용이 수립될 수 있으며, 결국 대구대학교 내에서 융합 전공의 위치와 맥락에서 고려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장기적으로 정착 및 내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앞의 2번에서 논의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 관련 전문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하위 구성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구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개발 경로가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수준에서 역시 체계화될 수 있다 [11].

세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해 교육과정 관점에서 구성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역량을 종합해 보면, 전문인력 자격 유형은 크게 “코디네이터 유형(coordinator type)”, “전문교사 유형(professional teacher type)”과 같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2]. 위 전문역량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교수·학습 역량”, “관련서비스 역량”을 종합해 보면, 코디네이터형과 전문교사형의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격 유형 및 등급별 경로가 상기될 수 있다. 특별히,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는 일반평생교육 분야와 달리 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삶의 질을 주요 교육목적 및 내용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면서 일회적인 치료나 훈련, 복지서비스의 차원보다도 교육적인 접근이 보다 활발히 요구된다 [21]. 이런 측면 역시 대구대학교 내에서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신설함에 있어 분야별 해당 학과를 중심으로 주도적인 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학과를 선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세부 전공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준다.

대구대학교에서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이 신설 추진되었을 경우 분야별 관계자들이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유형은 코디네이터형이다. 코디네이터형은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제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계 및 기획, 총괄하는 업무로 전문성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반평생교육 분야와의 범주에서 성인기 장애인의 실제 평생교육 수요에 맞추어 더욱 활발히 다루어야 할 전문역량이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학습”의 측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교사형으로의 심화·발전 경로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2]. 이런 측면은 대구대학교에서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을 신설하는 데 보다 주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여해야 할 해당 분야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점과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유형에 있어

‘전문교사형’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대구대학교 내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공을 정착화시키는 노력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세 분야에 속한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전문교사형’의 자격 등급 기준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성과를 실제로 관리하고 환류 개선할 수 있는 해당 분야가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세부 전공으로 반영되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자격 특수성(qualification specificity)”에 해당하는 ‘전문교사형’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적용 방략과 모델 역시 실제화되어야 한다 [23-25][26-28][29-31].

대구대학교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자격 유형과 관련하여 ‘전문교사형’이 상세화되는 것은 해당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역량 관련 교과목을 양·질적으로 활발히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해당 분야의 대학원 학과 세부 전공 차원으로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이 대구대학교에서 현실화될 때 대학을 기반으로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 전공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직업재활센터, 사업장,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구성된 교과 및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과정과 자격 유형의 기반에 의해 통합 구성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6][32-34]. 이를테면,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전환을 위해 연장선상에서 직업 및 자립생활교육에 중점을 두는 특수교육 전공과가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교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역량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에서는 합일화된 교육과정과 안정화된 전문인력 자격을 중심으로 협력과 성과를 공유 및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기대 효과는 장애인 분야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 기반의 학제적 접근에 의한 융합 수준의 공감대 형성 결과로 제고해 볼 수 있으며, 대구대학교 내 해당 분야의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재활과학과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양성을 활발히 추진할 때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대구대학교에서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장애인평생교육 융합 전공 신설은 대구대학교 자체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를 보다 장기적인 안정성 수준에서 타당화시키려는 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범주가 고려된 외연 확대 차원에서는 지역 장애인평생

교육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간 연계를 통한 통합 구성체계 확립 기여에 가치가 있다.

이상에서 전술한 바를 종합하여 후속적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대학원 재활과학과 등 학과 단위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세부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위 운영 모델이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와 융합될 수 있는 이점과 근거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9, 10]. 덧붙여, 거점 대학의 샘플 차원으로 반영된 대구대학교의 사례가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가 구축된 타 대학의 장애인평생교육 전공 신설 및 운영을 리더할 수 있는 로드맵이 설계됨으로써 공동으로 대학 기반화에 따라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장애인복지관 등)을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방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상황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학문, 실천 토대와 같은 기초적 차원을 타당하게 구축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간 통합 구성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 내용을 논의하였다. 위 가능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의 인프라가 활발히 구축되어 있는 대구대학교는 거점 대학의 위치에서 국가 및 지역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융합적 탐구와 노력에 의해 현실성과 기여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가칭)」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이지만, 지역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의 조직, 교육과정, 전문인력 자격 기반은 기존의 분야와 유사·중복되는 경향성 가운데 교육과 복지의 관점이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곧 실천(practice) 수준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이전에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토대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맥락을 정립해야 할 사전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런 필요성은 대학 기반화의 리더십(leadership of university foundation)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장애인 교육복지 분야를 특수교육, 재활과학,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점 대학인 대구대학교에서 일차적인 시작점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의 동향에 있어 장애인평생교육 분야가 일부 대학교의 사례에서 세부 전공으로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의 학문, 실천 토대의 정립을 위해서는 대학의 리더십 차원에서 여전히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역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이 활발히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결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체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성격과 맥락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 유관기관에서 장애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교과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를 전 생애 주기별로 성과관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자격화 제도 기반 역시 타당하게 정착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대구대학교 샘플 사례를 통하여 장애인평생교육학(學)의 정립과 증거기반의 실제 구축이 분야 간 학제적 접근에 의한 융합에 의해 현실화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Y.J. Kim, and K.S. Kang, "An Operating Plans for the Interconnection between Local Agencies and Promotion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on the Special Education Convergence Based on 「Department of Support for th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Graduate schoo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2, pp. 89-103, 2019. <http://dx.doi.org/10.15207/JKCS.2019.10.2.089>
- [2] Y.J. Kim, and R.H. Kwon, "Organized the Scope of Professional Competency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ors for the Disable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Convergence System Development of Coordinator and Professional Educato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1123-1138, 2021.
- [3] Y.J. Kim, R.H. Kwon, and M.A. Do, "Exploring the Validity of Convergence between Qualifications and the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1, pp. 82-91, 2021.

- [4] Y.J. Kim, and M.S. Kim, "Review of the Limitations of Instruction on the Content of Curriculum for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Validity of the Demand-based Qualification System for Nurturing Professionals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Discrimination Compared to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Competency of Lifelong Educators Belonging to the Current General Lifelong Education Field,"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6, pp. 1425-1440, 2020.
- [5] Y.J. Kim, and K.S. Kang, "Restructuring Pla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System from the Convergenc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0, No. 8, pp. 365-402, 2018.
- [6] Y.J. Kim, and K.S. Kang, "The Innovation Challenges of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with Convergence o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0, pp. 167-182, 2018. <http://dx.doi.org/10.15207/JKCS.2018.9.10.167>
- [7] Y.J. Kim, and K.S. Kang, "A Study on the Roadmap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vergence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Disabled Lifelong Education Based on the Curriculum of Special Education Department in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6, pp. 43-56, 2019. <http://dx.doi.org/10.22143/HSS21.10.6.4>
- [8] W.H. Kim, "Exploring the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Transitional Education: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Special Teachers and Subject Teach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22, No. 3, pp. 141-170, 2020. <http://dx.doi.org/10.21075/kacs.2020.22.3.141>
- [9] K.G. Han, W.H. Kim, and K.Y. Joo,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uture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FGI Analysi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55, No. 1, pp. 135-157, 2020. <http://dx.doi.org/10.15861/kjse.2020.55.1.135>
- [10] Y.J. Kim, and R.H. Kwon,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at Home Using Contents of Lifelong Education Center Attached to the University on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ation of Cooking Task Skills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ly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8, pp. 137-150, 2021. <http://dx.doi.org/10.22156/CS4SM.B.2021.11.08.137>
- [11] Y.J. Kim, "The Convergence of Academic Speciality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by Evidence-Based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A Viewpoint of Preparing General Lifelong Education,"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4, No. 4, pp. 75-89, 2020. <http://dx.doi.org/10.37181/JSCS.2020.4.4.075>
- [12] D.Y., Jeong, D.I. Jeong, and I.S. Jeo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Direction of Inter-agency Collaboration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Vol. 7, No. 1, pp. 1-34, 2004.
- [13] Y.J. Kim, W.S. Kim, and R.H. Kwon, "Internal Foundation on the 'of', 'for', 'from'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Converge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chool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67-74, 2021.
- [14] Y.J. Kim, and M.A. Do,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3, No. 3, pp. 39-68, 2014. <http://dx.doi.org/10.15870/jsers.2014.09.53.3.39>
- [15] W.H. Kim, and Y.W. Lee, "A Study on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by Subject: Focused on the Six Major Area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16, pp. 623-649,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6.623>
- [16] S.S. Kim,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of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Future Education*, Vol. 9, No. 1, pp. 1-23, 2019.
- [17] K.Y. Kim, J.H. Choi, and H.S. Lee, "Research Trend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Key Words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4, pp. 697-710, 2021.

- [18]O.S. Chang, and B.U. Jeon, “An Analysis of the Trend of Qualitative Researches on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entered on papers and journals published in Korea from 2007 to 2018,”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Vol. 4, No. 2, pp. 73–102, 2018.
- [19]J.M. Baik, and Y.P. Kim, “Status and Tasks of Related Laws and Supporting System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 pp. 859–871, 2019.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85>
- [20]I.S. Jeong, “The Foundations and Implica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U.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4, pp. 173–193, 2007.
- [21]H.S. Kim, and H.T. Yang, “A Study on the Necessity of Welfare Policy Reflecting the Need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In Sihe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focus on the survey of their needs -,”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Vol. 5, No. 2, pp. 25–53, 2019.
- [22]Y.J. Kim, and K.S. Kang, “Operation Plan of National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enter Commercialization to Revitalize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0, No. 6, pp. 501–540, 2018.
- [23]H.I. Park, “The Task of Research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the Il-Shim Perspectiv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4, No. 1, pp. 25–47, 2018. <http://dx.doi.org/10.26857/JLLS.2018.2.14.1.25>
- [24]J.Y. Kim, “Execution of the 4th Master Plan for Life-Long Education & the Direction and Task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Vol. 4, No. 2, pp. 1–28, 2018.
- [25]K.Y. Kim,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of Adult Learn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7, No. 4, pp. 119–140, 2011.
- [26]K.Y. Kim, “A Delphi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1, No. 3, pp. 1–18, 2017.
- [27]K.Y. Kim, “An Exploratory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l. 22, No. 2, pp. 27–42, 2018. <http://dx.doi.org/10.34262/kadd.2018.22.2.27>
- [28]J.S. Park, “A Study on Perception of Teachers o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1, No. 3, pp. 161–191, 2009.
- [29]Y.J. Kim, W.S. Kim, and R.H. Kwon, “Convergence Reconstruction of Transition Education Model for Korea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Feasibility View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nkage between Schools and Communit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95–104, 2021.
- [30]Y.J. Kim, and M.A. Do, “Development of a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1, No. 4, pp. 61–100, 2017.
- [31]Y.J. Kim, and M.A. Do, “Plan for an Integration System based o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to Foster Cooking Startup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Vol. 12, No. 1, pp. 23–58, 2018. <http://dx.doi.org/10.35304/JCI.12.1.02>
- [32]Y.J. Kim, W.S. Kim, and K.Y. Rhee, “COMPOSITION OF A UNIFIED MODEL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TYPES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VERGENCE MAJOR IN DAEGU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4, pp. 40–51, 2021.
- [33]Y.J. Kim, W.S. Kim, and K.Y. Rhee, “THE REDEFINITION OF SUPPORT SYSTE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AL DISABLED BASED ON UNIVERSITY: LEA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POSITION SYSTEM BETWEEN COOPERATION WITH LOCAL RELATED ORGANIZATIONS AND FOSTERING QUALIFICATIONS FOR PROFESSIONALS THROUGH CONNECTION WITH CURRICULUM BEYOND THE LEVEL OF USE OF PHYSICAL SPACE,”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4, pp. 52-60, 2021.

- [34]Y.J. Kim, and W.S. Kim, "Formation of a Convergent Structure System for Access to the Qualifications of Lifelong Education Professionals for the Disabled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5, No. 6, pp. 1-17, 2021.